

# 완전 형태 통일신라 금석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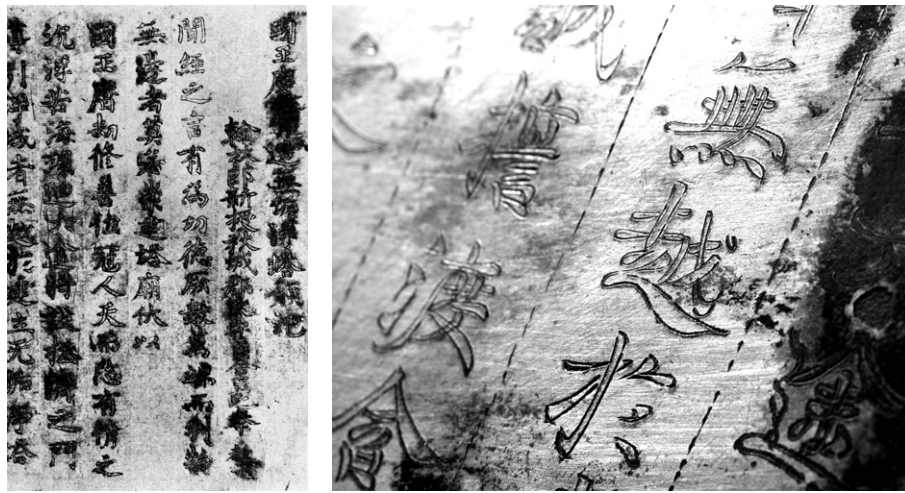
### 불교문화재, 사찰문화재 일체조사 중 응주사서

통일신라 제46대 문성왕(839-857)이 대종 3년(855)에 경주 남산 창림사에 삼층석탑을 세웠다. 탑 안에는 탑 건립 배경과 발원내용, 조탑에 관여한 인물을 기록한 금동판(22.4cm\*38.2cm) 형태의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가 봉안됐다. 경응은 문성왕의 휘이고, 무구정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뜻한다.

관아 소장 중이던 금동판을 발견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 이하 연구소)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사 김정희가 모사한 창림사 삼층석탑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 원본을 소개했다.

**문성왕 3년 남산 창림사탑 봉안  
1824년 탑 도괴때 추사가 모사  
봉우 김유근에 전달...영원사로  
용주사 효행보 소장된 것 발견**

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이하 탑원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탑원기는 제작연대와 발원자가 있는 완벽한 형태의 통일신라 금석문으로 국보급으로 추정된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불교사, 미술사, 서예사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탑원기의 금속성분, 서체, 금속 제작기법 등을 관련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순동(Cu), 금(Au), 수은(Hg) 등이 검출돼 탑원기가 아발갈수 은기법에 의해 제작됐음이 증명됐다.



1940년 <경주 남산의 불적>에 수록된 추사 김정희의 모사본(왼쪽)과 최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견한 탑원기 원본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전문가 자문 결과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품과 추사가 말한 창림사 삼층석탑 발원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체면에서는 탑원기와 김정희의 모사본이 자간(字間), 결구(結構) 등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탑원기에서 보이는 필획이 보다 더 정밀하고 생동감이 넘치며 절구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탑원기에 사용된 글자 새김 기법은 글자의 윤곽을 따라 그리는 쌍구법(雙鉤法)이다. 쌍구법은 '염거화상탑지' (844), '황룡

사구층목탑 참주본기' (872), '중화3년명경통' (883) 등 통일신라 동판에 글씨를 새길 때 즐겨 사용됐던 기법이다. 미등 스님은 "금동판의 고된 연마와 도금을 한 후 작은 망치로 정(釘)을 쪼아 글자를 새기는 방식 등에서 매우 숙련된 장인이 제작 기술을 살릴 수 있고, 표면의 불규칙한 크랙(crack)은 현대 금속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탑원기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기복신앙 · 내세추복 등 조선왕실 원당은 '유·불' 점점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청구논문서 규명



당이 고운사·송광사 등에 설치됐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원당이 갖던 추천(進薦)·추복(進福)의 성격이 약해지고, 유교적

의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박효정 박사는 조선시대 왕실원당의 특징을 ①왕실원당은 유교·불교의 점점에 위치한 시설물이었다. ②불교식 국가의례의 폐지에 따라 왕실의 기복행위가 원당으로 집중됐다. ③왕실원당이 왕권강화 내지 왕실 권위의 대외적 표명 수단으로 활용됐다. ④조선후기로 갈수록 유학자

최근 박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최근 박사학위청구논문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왕실원당이 어떤 형태로 유지됐고, 그것이 조선시대 불교계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했다. 또, 왕실원당이 설치된 이유를 분석해 조선시대 불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신앙적 특징을 규명했다.

박효정 박사는 "원당은 조선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세신앙과 천도의례, 효 사상, 기복신앙의 점점에 위치한 대상물이다"라고 말했다.

왕실에서 원당을 설치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왕·선후의 명복을 발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당은 불교적 시설물에도 유교에서 중시하는 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왕을 위한 일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원당 효사를 주장하는 관료들의 청을 물리친 기록도 있다.

박효정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왕실과 원당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수혜관계에 가까웠다. 왕실에서 특정 사찰을 조성·지원함으로써 원당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분들을 부담했고, 왕실의 특권 또한 이들 사찰에 부여해 정치적 보호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선후기에는 왕비·후궁이 득남발원 후 왕자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당이 늘어났다. 특히 조선시대에 연로한 문신(文臣)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명예기구인 기로소(耆老所)와 원당이 결합해 기로소원당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원

당이 고운사·송광사 등에 설치됐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원당이 갖던 추천(進薦)·추복(進福)의 성격이 약해지고, 유교적 의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박효정 박사는 조선시대 왕실원당의 특징을 ①왕실원당은 유교·불교의 점점에 위치한 시설물이었다. ②불교식 국가의례의 폐지에 따라 왕실의 기복행위가 원당으로 집중됐다. ③왕실원당이 왕권강화 내지 왕실 권위의 대외적 표명 수단으로 활용됐다. ④조선후기로 갈수록 유학자

**역불승유 정책 속 왕실은 불교신앙  
선왕·선후 명복 기림 孝상상 일치  
조선후기, 구도 아닌 기복 치중  
500년간 불교전통 이어진 근간**

관료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이단 시비가 사라지고 불교 시설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 ⑤조선후기 왕실 불교신앙은 구도가 아닌 기복에 치중됐다. ⑥조선후기에는 왕실원당이 궁방의 재정원으로 활용됐다. ⑦조선후기에는 왕실원당도 막대한 잡역에 시달렸다. ⑧조선후기 왕실 능묘나 진전을 관리하는 사찰을 지정하는 조포사(造泡寺)라는 새로운 형태의 원당이 등장했다고 분류했다.

박효정 박사는 "현재 한국불교가 지닌 기복신앙, 내세추복적 성격은 조선시대 불교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왕실원당이 조선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대구 청계사 불상 문화재적 가치 있어”

### 문명대 소장, '강좌 미술사' 게재논문서 주장

대구 청계사는 대구스타디움 뒤 계속해 자리한 고찰터에 중창된 사찰이다. 이곳에 봉안된 석불은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비로자나불 입상으로는 드문 지권인을 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로자나불입상이다. 문명대 소장은 "지권인을 짓고 있는 비로자나불상은 <80화엄경>을 바탕으로 신화업종에서 밀교의 비로자나불신관을 대담하게 수용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대구 청계사 석비로자나불 입상. 청계사 주지 설정 스님은 대구시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최근 <강좌 미술사> 제35호에 게재한 주제논문 '대구 청계사 고려 석비로자나불입상의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석남암사 비로자나불(766)에서 발견되며, 9세기에는 신라 전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다.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은 불상과 광배가 한 돌로 조성됐다. 현재에는 누군가 눈을 파버려 얼굴에 손상이 있고, 광배 상단 좌우가 깨어져 나갔으며, 대좌가 소실된 상태이지만 불상 자체는 잘 보존돼 있다. 이 불상은 광배 뒷면에 명문이 새겨진 패(牌)형 부조를 갖고 있다. 특히 고려불상으로 왼손을 배에 들어 주먹을 쥐고 검지를 끈주 세운 팔마타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감싸 쥔 지권인을 짓고 있고, 보기 드문 석

문 소장은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 같은 불형(佛形)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입상은 국립경주박물관,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품 등 극소수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청계사 석비로자나불입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으로는 희귀한 예로 중요시되며 더구나 돌로

된 석지권인 비로자나불입상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귀중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응용불교 논문 공모

### 불광연구, 전법학연구 학술상 제정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흥)은 "광덕 큰스님의 전법행을 계승해 전법(傳法)과 교화(教化)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전법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불교학을 개척하기 위해 '전법학 연구 학술상'을 제정한다"고 2월 28일 발표했다.

'전법학 연구 학술상'은 ▷전법교화에 대한 불교사상 연구 분석 ▷전법교화의 역사적 사례와 전개과정 연구 ▷전법교화의 현대적 방법론 제시 ▷전법교화의 모범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 연구 ▷전법교화에 헌신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전법론 분석 등 관련 주제로 공모된다.

학술상 공모일정은 3월 1일~4월 30일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혹은 중무원, 포교사 등 불교기관 종사자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접수받고, 9월 30일까지 완성된 논문을 접수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02)941-3537 조동섭 기자

## 지장보살 신앙 연구 등 눈길

### 위덕대 박사학위 청구 논문

임동주 위덕대 박사는 '신라불교 윤리사상 연구'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불교를 바탕으로 한 윤리관과 실천이 있었음을 고찰했다.

해당 정사의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 연구'는 진각종 교학의 형성과정

참회원, 심인불교, 진각종 등 교명(敎名) 교칭과 관련해 고찰해 진각종의 시기별 교학체계를 밝혔다.

무통 스님도 위덕대 박사학위청구논문 '지장보살신앙 연구'를 통해 위경의 논란에서 벗어난 지장보살 관련 경전인 <대방광심결경> <대방등대결경> <대승대집지장심결경>의 다양한 전거를 들어 지장보살의 원류적 신앙성과 다리니의 유용성을 고찰했다. 조동섭 기자

## 용문선원(龍門禪院)기공수련 안내

本院은 中國 道家 全真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에게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16-328-3974(유재용)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3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3월 개강. **매주(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